

이번주 신간은… 〈촌부 백지를 물들이다〉 일우 지음/금샘 펴냄/1만원

"생각하라 크고 깊게 생각하라 머리를 비우고 가슴을 열어 그대의 근본을 찾아가라 끝없이 되돌아오던 길이 보이거든 놓지 말고 나아가라. 그 길속엔 뜨거운 불길도 천길 낭떠러지도 깊은 바다의 심연이 있으리니 두려워 말라" 〈심경 中에서〉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7~9/13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각성스님/용하스님	비움과소통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부처님 광명 기원문	성운대사/원성스님	운주사
3	공덕(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법보신문	모과나무	8	그대는 꽃입니다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후회없는 죽음, 아름다운 삶	로드니 스미스/이창엽	담앤북스
5	붓다의 철학(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선불교를 철학하다)	이진경	모과나무

한번쯤 마음 두고 와도 괜찮은 日本을 만나다



나치산 세이칸토지의 본당 옆 삼중탑과 나치폭포 모습.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배종훈 지음/더블북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유럽의 소도시 풍경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SNS에 소개해 수많은 팔로워에게 사랑을 받는 어반 페인터(Urban painter) 배종훈 저자가 이번에는 드로잉 펜과 스케치북을 챙겨서 일본의 소도시로 혼자 떠났다. 떠나고 싶은 순간이 먼지처럼 소리 없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열병처럼 찾아오자 미련 없이 일본행 항공권을 샀다고 한다.

이번 여정은 오사카에 이웃한 와카야마 현의 구마노고도 순례길, 시코쿠 섬과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세토대교로 유명한 오카야마 현의 구라시키 미관지구,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지로 알려진 아키타 현의 다자와 호수 등이며 그 밖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나 명승지(사찰, 온천, 협곡)는 한 번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은 곳들이다.

작가는 산사서, 순례길에서, 바닷가에서, 시골 기차와 버스에서, 골목길 작은 찻집에서, 일상의 소중함과 혼자 떠나는 '느긋한 외로움'

저자, 어반 페인터로 수많은 팔로워 확보

日 소도시 여행 한뒤 펴낸 드로잉 에세이

산사, 순례길 등지서 일상의 소중함 체험

'소소한 특별함' '주인 없는 그리움'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라는 드로잉 에세이를 펴냈다. 책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혼자 떠날 수 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소설가 백영옥 씨는 이번에 출간된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를 읽고 나서 "어쩌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do not disturb'의 세계이다. 내가 나와 좀 더 친밀해질 기회다. 혼자 떠난 작가의 여정을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그가 느꼈다던 '느긋한 외로움'을 나도 느낀다"고 전했다. 배종훈 작가는 "왜 일본이냐"는 질문보다 "여행이 행복하냐"고 물어 주면 특별할 것 없는 골목길이나 강변, 바닷가, 산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서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작가는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삶의 의미는 결국 자기 스스로 묻고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주 잠시라도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만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행을 통한 침묵의 시간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줄여서 그 만큼의 여백으로 자신과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행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일상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른다. 드로잉 펜이 아니어도 좋다.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손에 쏙 잡히는 책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를 여행 가방에 넣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 오기 위한 혼자만의 여행을 훌쩍 떠나 보는 건 어떨까?



옛 순례자 복장을 한 여행자 둘이 걷고 있는 뒷모습.

죽음 받아들일 때, 삶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후회없는 죽음, 아름다운 삶

로드니 스미스 지음/이창엽 옮김

담앤북스 펴냄/1만 6천원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했으며 승려로 출가 했고 호스피스에도 종사한 저자 로드니 스미스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종말을 깊이 숙고하면서, 우리가 종종 당연히 여기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적을 일깨울 수 있음을 따뜻하게 말한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며 얻은 직접적인 조언과 많은 이야기, 개인적인 일화 등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교훈들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 13개 장의 끝에 있는 '성찰과 연습'을 실천하면, 각 장서 전하는 삶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보다 완전하게 통합할 수 있다. 이 책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과 신비, 경이로움을 다시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알려준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생명의 소멸을 슬퍼하는 것이 삶의 필연적인 모습이다. 탄생을 기뻐하는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될 때 지난 삶에 대한 후회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지인의 죽음, 친구의 죽음, 친척과 가족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존재의 소멸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것을 피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려 한다. 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더 자세히 알고자 파헤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말한다. 죽음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며,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는 길이고, 삶을 더욱 충실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 "죽음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며,
> 온전한 자유를 얻는 길이고,
> 삶을 더욱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

남방 상좌부에 출가해 승려로서 깊은 수행을 했으며 호스피스에 오랫동안 종사한 저자 로드니 스미스는 죽음에 깊이 천착(穿鑿)하였다. 그가 출가수행자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온 것은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환속한 뒤 그는 호스피스에 관련된 여러 활동에 종사하면서 죽음의 바로 곁에서 죽음과 삶을 탐구했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사례가 담겨져 있다. 이 사례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타인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

이 책에 실린 호스피스 환자들의 오랜 습성과 두려움, 후회와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바로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와 두려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신비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임종을 맞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며 얻은 직접적인 조언과 많은 사례, 저자의 개인적인 일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여러 명구 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죽음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죽음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고 새로운 이해를 선사한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에 있는 '성찰과 연습'은 이러한 통찰과 이해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셉 골드스타인은 추천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여기에 실린 많은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용기 있는 정직성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불릴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은 죽음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망률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기에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함양할 때는 현명한 차별에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김주일 기자

선禪으로 송시를 보다!

송시의 선학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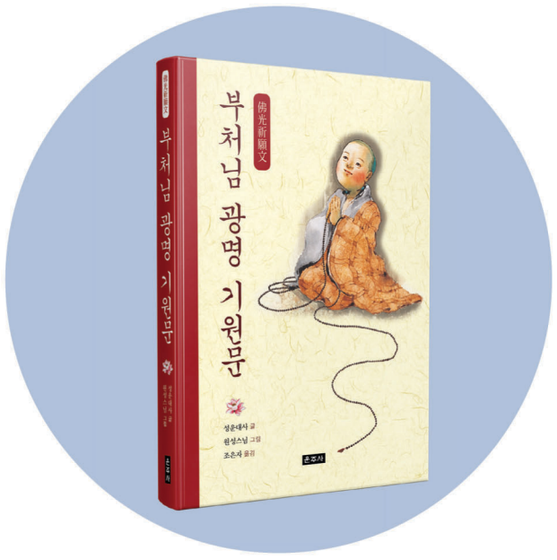
송대의 시가詩歌는 어떻게 중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였기에 그들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박영환 지음 / 536쪽 / 값 27,000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과 평온을 선물한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 / 440쪽 / 전면컬러 / 값 23,000원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윤회와 인과의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200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